

高等教育의 새로운 座標 設定



培材大學長 李 聖 根

요즘 國際社會의 변모하여 가는 모습을 지켜 볼 때에 여러모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많은 현상들에 접하게 된다.

불과 수 십 년 전만 하더라도 全世界 生産量의 절반을 차지하는 富를 창출하던 美國이 이제는 그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巨大한 債權 국가로 군림하던 美國이 이제는 財政赤字와 貿易赤字로 허덕이는 債務國家로 轉落되었다.

그런가 하면 수 십 년 전 敗戰 이후 폐허 속에서 彷徨하던 西獨과 日本이 巨大한 債權國으로 올라 섰으며 日本人의 個人 소득 수준이 美國人들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제 1차 世界大戰으로 債權國으로 急上昇되었던 美國의 經濟力이 70여 년을 지나면서 다시 債務 국가의 地位로 되돌아갔고, 같은 시기에 美國과 함께 債權國으로 부상되었던 日本이 그 후 30여 년이 지나며 폐허로 돌아갔다가는 다시 40년 후에는 債權國으로 발돋움했다.

그 지난 70년 동안에 소련도 크게 변하였다. 제 1차 大戰時에 舊體制를 전복시키고 革命에 성공하였던 ‘소비에트’ 體制는 15개의 공화국, 20개의 自治 공화국, 8개의 自治州, 그리고 10개의 自治區를 거느리고 1914년 당시 세계 공업 生産량에 불과 4%만을 지배하던 소련이 1986년에는 무려 20%를 지배하는 巨大國家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도 急速하게 變化하는 세계의 조류 속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어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構造의 矛盾을 신랄히 비판하고 그 克服의 論理를 社會主義에서 찾았다고 흥분하였으나, 오늘날 소련은 바로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構造的 矛盾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며, 그 匡救策을 모색하기 위하여 철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구가 크게 自轉을 하듯이 歷史도 바야흐로 크게 自轉을 開始한 느낌이다.

바로 이와 같은 歷史의 軸이 크게 自轉을 完結한 時代가 20세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歷史의 自轉은 그 軸의 基底를 形成하는 次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變化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國際社會의 變化의 位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약 1주일간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確信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社會主義 經濟體制 속에 內在하고 있는 限界性의 장벽인 것이다. 즉 人間들이 共有하고 있는 內面的 世界에 있어서는 計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이다. 人間은 결국 정교한 ‘로봇’와는 다른 人格的 主體이기 때문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展開될 21 세기의 문제도 人間의 存在樣式에 歸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形態의 人間이 培養되는가의 焦點은 역시 教育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高等教育을 통한 人間型의 開發은 重大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急速한 Tempo로 變化를 더하여 가는 國際社會의 要請이란 視角에서 高等教育의 改編을 게을리 하여 왔지 않았는가 되돌아 보게 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大學의 量的 增加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보았고, 그 나름대로 國家 建設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의 급속한 産業化와 尖銳化 되어 가는 국제 사회의 경쟁 속에서 오늘날의 大學들이 과연 21 세기의 要請에 얼마나 有效하게 부응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그 時代가 要請하는 教育이 있고, 또한 教育은 그 나라마다 그 質을 달리하게 마련이다. 마치 집안마다 家訓이 다르고 教育熱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어느 社會나 教育에 投資할 수 있는 財源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限定된 財源을 어떻게 有效하게 사용하여 그 社會가 要請하고 있는 人材를 供給하느냐가 教育政策의 核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 세기중에 그 전반기는 일본의 植民地로서 教育의 기초가 다져져 왔으며,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미국의 教育 정책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돈 많은 나라의 教育 정책을 흉내내다 보니 外華內質의 教育 기관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유럽 여러 선진 산업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나라의 大學들을 살펴 보자. 大學에 운동장이 어디 있으며 학생 회관, 수 많은 교수 연구실 등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로지 古色이 창연한 강의실들과 알찬 도서관, 학문적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들로 大學教育이 충족되고 있음을 본다.

영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올리고 人口도 훨씬 많으면서도 대학생 수는 겨우 약 3분의 1 정도인 40만 명으로도 아직 세계의 선도적 국가로서의 체통을 잃지 않고 있지 않은가?

數的인 문제만이 아니다. 教育의 내용에 있어서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지 오래인 것 같다. 수 만 명의 英·美 文學徒를 길러 내겠다고 하면서 과연 英·美 國 地域의 政治·社會·文化에 대한 깊이 있는 地域 전문가를 얼마나 養成하여 가고 있는가 自愧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속의 한국을 志向하고 있으면서, 수출에 의존하여 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폭 넓은 理解에 너무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